전남도, 관광산업으로 지역 활력 되찾는다

전남 방문의 해 선포
남도한바퀴 운영 재개
문화 체육 콘텐츠 강화

전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로 일상회복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관광산업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전남 방문의 해 선포, 남도한바퀴 재개 등 새롭고 다양한 관광·문화·스포츠 콘텐츠를 선보인다. 관광산업을 통해 침체한 지역 경기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청정·힐링·안심쉼터, 전남으로 오세요'를 슬로건으로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운영할 예정이다.

6월 14일 전남 방문의 해 선포식를 개최하고 전남 관광 자원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방문객에 대한 환대 서비스를 정립할 예정이다. 국내외 빅이벤트를 유치 또는 주최하면서 전남관광플랫폼을 신속하게 구축해 누구나 불편없이 전남을 찾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방문의 해 선포식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관광·문화축제로 열고, 관광객 맞이를 위해 민간 관광안내소 확충, 관광약자 편의시설 개선, 깔끔이부자리, 방역수용태세 지원, 친절·청결·위생 등 환대서비스 교육 및 캠페인도 펼친다.

MZ세대 관광객 유치 및 체류형 관광 실현을 목표로 9월 신명나는 전자음악 축제인 '남도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 페스티벌', 7월 '2022 전남 캠핑박람회', 9월 '드론 라이트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국내외 특별한 체험 이벤트도 진행한다. 스마트관광 기반 마련을 위해 5개 국어로 스마트 관광정보, 모빌리티, 예약·결재시스템이 가능한 전남관광플랫폼(J-TasS) 구축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또 코로나 이전으로 관광콘텐츠를 정상화해 활력을 찾겠다는 목표로'전남~제주 차량도선' 여행상품을 새롭게 내놓았다. 중단했던 100여개 지역축제와 수학여행 유치 마케팅, 관광지 광역순환버스 '남도한바퀴' 등을 재개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선 무안국제공항 인바운드 전세기 노선지원과 외래관광객 숙박비 지원 등 인센티브로 폭증하는 관광수요를 선점할 방침이다. 국제크루즈 유치, 해외박람회 참가, 중동시장 개척 등 글로벌 마케팅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활동 및 회복 지원을 위해 소외계층 문화누리카드 발급, 도서·산간·섬 등 문화소외지역에 도립국악단의 찾아가는 공연과 청소년·장애인 예술캠프 공연 재개를 추진한다. 비대면·디지털 문화예술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온라인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와 전시 생중계 등 온라인 플랫폼 기반 디지털 예술활동 지원 확대, 전남메타버스 문화예술 콘텐츠 지원 등 문화산업 융복합에도 나설 방침이다. 향교서원·전통산사 등 탐방, 문화재 야행, 전 도민 역사인문 강연회, 마한문화행사와 학술경연대회 등도 운영한다. 3년 만에 전남도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를 재개하고 전문·생활체육대회도 개최하는 스포츠 행사도 예정대로 치를 예정이다.

김영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등으로 대부분의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 그동안 준비한 다양한 관광·문화·스포츠 분야 시책을 본격 실행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뻘배타고 갯벌 누벼요 휴일인 8일 순천시 별량면 거차마을 뻘배체험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갯벌체험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예체능·미래리더 '으뜸인재 발굴' 나서

중·고·대학생 90명 모집
연간 최대 600만원 지원

전남도가 '제3회 으뜸인재 발굴대회'를 통해 지역의 재능있는 인재 90명을 모집한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학문의 꿈을 키우는 지역인재 3명을 제3기 전남도 해외유학생으로 최근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으뜸인재 발굴대회'는 전남도가 지역의 숨은 인재를 찾아 그들의 재능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했다. 예체능리더와 미래리더(분야 제한없음)로 구분해 선발하며 중·고·대학생은 물론 학교밖 청소년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선발한 '새천년 으뜸인재'에게는 재능계발비로 연 300만~600만 원을 당해 학교 졸업 때까지 지원하고 역량계발에 집중하도록 전문가를 연결해준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졸업 학년 대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또 대학생의 경우 최대 4년까지만 지원했던 것을 올해부터 소속대학 학과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함에 따라 건축학과, 의예과 등 특수 학과 소속의 재능있는 대학생이 최대 6년 동안 안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6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7월 말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제3기 전남도 해외유학생으로 선발된 3명은 각각 목포대 조선공학과, 카이스트 전산학부, 전남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이들은 미국 미네소타대, 스위스 취리히 연방 공과대, 미국 일리노이대 진학이 예정돼 있다. 선발 장학생에게는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하도록 학비와 생활비를 포함해 2년 동안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윤재광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장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꿈을 키우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며 "지역 인재들이 멋지게 성장하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생계형 체납자 구제
5년 이상 부동산·차량 6378건

광주시가 생계형 체납자 구제에 나섰다.

광주시는 8일 "장기 압류 부동산과 차량 등에 대한 압류대장 정비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제정리 대상은 압류처분 후 5년 이상 지난 부동산과 차량 등 모두 6378건이며, 체납금액은 54억5000만원이다.

시는 이들 중 압류 실익이 없는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체납 처분 중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압류자료를 분석해 압류 해제 대상을 추출하고, 6월 중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한 달 간 체납 처분 중지공고를 한 후 7월까지 압류 해제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김영희 세정과장은 "일제정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회생을 돕고 행정력 낭비를 없애 체납액 징수활동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분납 유도,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스마트팜 청년창업 무료 교육
전남도, 31일까지 신청 접수
혁신밸리 입주 등 혜택 다양

전남도가 미래 첨단농업을 이끌 청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을 모집한다.

스마트팜 청년 창업보육 교육은 스마트팜에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스마트팜에 특화한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교육생이 실제 독립 경영이 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도록 하는 전문 농업교육을 한다. 교육 신청 대상자는 만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로 스마트팜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교육비는 무료다. 참여를 바라면 스마트팜 코리아 누리집(www.smartfarmkorea.net)을 통해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서류·면접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말까지 교육생 5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9월부터 총 20개월 간 교육을 받는다. 교육과정은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작물기초, 환경제어, 데이터 분석 등 이론교육 2개월 ▲보육센터 실습장에서 교육형 실습 6개월 ▲교육생이 직접 영농경영을 하는 경영형 실습 12개월로 구성됐다.

교육형 실습과 경영형 실습 과정에선 스마트팜 전문 컨설턴트의 현장지도 및 자문, 국내 스마트팜 선도 농가 견학 등을 통해 전문적인 작물재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교육 수료생에게는 스마트팜에 취·창업하도록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농장 우선 입주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 신청 자격 부여 ▲청년후계농 선발 시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